



▲ 8월 9일, 영국 동해안의 유명 해변 도시 스케그니스의 연례 축제에 파룬궁 팀이 다시 초청을 받아 참가했으며, 정연한 요고(腰鼓), 평온한 음악, 화사한 복장은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고 약 50개 참가 팀 중 2등상을 받았다. 퍼레이드 전에 시장과 직원들은 여러 차례 수련자들을 찾아와 격려하고 기념 촬영을 했으며, 진상 자료와 작은 연꽃을 받았다. 퍼레이드가 끝난 뒤, 많은 관광객이 먼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감사를 표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9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531만 0551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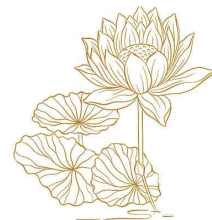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04期(2026.08.21) WWW.MINGHUI.ORG

한글판 1068호 minghui.or.kr



▲ 8월 7일부터 8일까지, 독일 파룬궁수련자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퍼레이드를 했다.

주요 내용

【수련】수련: 생명 매 순간의 선택

【수련】발정념을 중시하고 자신을 청리하는 것도 중시해야 한다

【수련】92세 할머니와 프린터 이야기

【수련】근본 집착을 제거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다

【문화】귀족 가문에 태어나 속세 떠날 뜻을 품은 음장생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감사 편지 이면에 담긴 80대 노인의 10년 권리 구제 여정 7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3

■ 수련교류

수련: 생명 매 순간의 선택 17

발정념을 중시하고 자신을 청리하는 것도 중시해야 한다 19

중국법회 투고에 관한 소고 22

현대 관념을 타파하며 얻은 약간의 깨달음 27

92세 할머니와 프린터 이야기 30

엄숙하고 착실하게 수련하니 척추 옆 종양이 사라지다 37

항시 자신의 사상 반응에 주의하다 41

근본 집착을 제거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다 44

■ 문화예술

귀족 가문에 태어나 속세 떠날 뜻을 품은 음장생 55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다. 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몇 줄의 석각으로 인해 대도(大道)에 오를 수 있다면, 그의 이 돌은 헛되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이 음장생이 후세에 남긴 가장 빛나는 한 획이다. 그는 자신이 개척한 길을 돌에 뚫어새겨, 천백 년 동안 훗날의 구도자들을 위해 등불 하나를 밝혀주었다.

백일승천해 ‘음왕’으로 잘못 전해지다

마침내 음장생은 평도산[平都山, 현 충칭 평두(豐都)]에서 백일승천했다. 백주대낮에 못사람이 주시하는 가운데 허공으로 날아가 선업을 성취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와 함께 평도산에서 비승한 또 다른 진인 왕방평(王方平)이 있었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음(陰), 왕(王) 두 진인’을 이어서 부르다 보니, 오랜 세월이 흘러 뜻밖에도 ‘음왕(陰王)’ 두 글자로 잘못 전해졌다. 평도산과 풍도(豐都) 역시 수천 년간의 견강부회와 변천 속에 유명(幽冥, 저승) 지부의 도읍, 즉 오늘날 멀리까지 이름이 알려진 ‘귀성(鬼城)’으로 상상됐다. 옛 수도인들 중에서는 매번 이 부분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빙그레 웃으며 탄식하곤 했다.

[역주: ‘음(陰)’에는 ‘저승, 명계’라는 뜻도 있어, 이 ‘음왕’이 우연히 ‘저승의 왕’이라는 의미로도 읽히게 되었다. 이 오해가 굳어지면서 두 신선이 승천한 성지였던 평도산과 그 소재지 풍도는 점차 ‘저승의 도읍’이라는 전설이 덧붙여졌고, 오늘날 ‘귀성(鬼城)’이라 불리는 관광지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에서 고통받고 있는 범속한 사람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황백술로 세상을 구제하고 빈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다

《태청신단경》에는 금단법 외에도 ‘황백지술(黃白之術)’이 실려 있었다. 즉 단약으로 평범한 쇠와 돌을 점화(點化)해 진짜 금과 은으로 변화시키는 법문이었다.

음장생은 이 재주를 다른 곳에 썼다. 그는 돌을 금으로 만들었으나 한 톨도 자신에게 쓰지 않고 모두 천하를 구제하는 데 썼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주었으며,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병든 자들 모두 그에게 암암리에 도움을 받았다. 그가 이처럼 선술과 어진 마음을 지니고 인간 세상을 거닌 것이 전후 170여 년에 달했는데, 용모는 시종일관 소년과 같았다고 한다.

뜻있는 사람을 기다리다

최종적으로 신선이 되어 떠나기 전, 음장생은 책 9편을 저술하고 또 돌에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세 개의 비문을 새겼다.

비문의 대의는 이러했다. 그는 본래 음씨 귀족 출신으로 대대로 한(漢)나라 왕실의 총애를 받아 자수금인을 찾으나, 도리어 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부를 따라가 고생스레 신단을 수련했다. 이제 큰 공을 이루고 세상을 돌아보니 일찍이 ‘구도(求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황천의 진토로 돌아갔고, 오직 그 한 사람만이 구름을 타고 비승해 태청에서 소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가 돌에 글을 새긴 의도는 비웃던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비문에 분명히 밝혔다. 이 글자들을 남기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훗날 이곳을 지나가다 우연히 읽게 되는, 마음속에 진정 구도할 뜻을 품은 단 한 사람을 위

해 외 종 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8월 7일과 8일, 독일 파룬궁수련자들은 유명한 금융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집회와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7일에는 하웁트바헤(Hauptwache) 광장, 8일에는 시청이 있는 뢰머베르크(Römerberg)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유럽 천국악단, 요고팀, 용춤팀의 공연은 많은 시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수련자들은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이념을 소개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 및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했다. 헤센주 자민당 의원이자 자민당(FDP) 의회 원내대표인 올리버 슈티어비크는 서한을 보내 성원을 표했다. “신앙, 신념 혹은 자유에 대한 평화로운 추구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중이 감시, 위협, 감금, 학대를 당하고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산 정권이 민중의 행동을 통제하려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신앙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회는 피해자들의 고난을 폭로했지만, 중공은 오히려 이를 덮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위협과 억압에 직면해서도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 가장 진심 어린 감사와 찬사, 그리고 성원을 보냅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많은 시민이 관련 상황을 알게 된 후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를 성원하는 서명을 했다.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파트릭은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를 성원하는 서명을 하며 “저는 언제나

그들(중공)이 중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면 아예 인권이 없다는 것ですよ”라고 말했다. 그는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출 만행에 대해 알고 있다며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라고 말했다. 파트릭은 파룬궁수련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중공의 박해를 폭로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48회 브리스틀 국제 열기구 축제(Bristol Balloon Fiesta)가 영국 브리스틀 애슈턴 코트(Ashton Court)에서 열렸다. 영국 파룬궁수련자는 네 번째로 초청받아 현장에서 파룬궁을 소개하고, 공법을 시연했으며, 시민들에게 파룬궁이 중국에서 중공으로부터 겪고 있는 박해 진상을 알렸다. 진상을 알게 된 많은 시민이 박해 반대를 지지하는 서명을 하며 중공의 만행을 규탄했다. 영국 도싯(Dorset)주에서 온 존 스위니(John Sweeney)는 ‘진선인’은 매우 훌륭한 도덕 원칙이라고 여겼다. “만약 이 원칙들을 경시한다면 매우 위험하며, 사람들은 이로 인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8월 6일, 네덜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은 헤이그 중앙역 맞은편 네덜란드 외무부 앞에서 진상 알리기 행사를 열고 네덜란드 외무부 및 사회 각계에 올해 7월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발생한 파룬궁수련자 대규모 납치 사건과 납치된 수련자들의 현재 처지에 관심을 갖고 박해 저지를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오가는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한 내용을 묻기도 하고, 지지 서명을 하기도 했다. 외무부의 한 직원은 수련자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이미 알고 있다며, 수련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진상을 알리는 일을 지속

마침내 10여 명의 제자가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음장생 한 사람만 남았다. 20여 년간 그는 스승 모시기를 하루같이 했고, 비질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공경하는 마음을 조금도 줄이지 않았고, 얼굴에 불쾌한 기색 하나 없었으며, 마음속에 한 점의 의심이나 후회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이 기나긴 세월 자체가 바로 가장 연성하기 어려운 화로의 단(丹)이라는 사실이었다. 신선의 도는 예로부터 조금하게 속도를 구하는 마음에 가벼이 주어지지 않았다. 진정한 문턱은 산이 높고 길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20년의 적막을 감내하고 지성으로 흔들리지 않음에 있었다.

공을 이루고도 곧바로 승천하지 않다

어느 날 마명생이 마침내 웃었다. 그는 음장생에게 말했다. “내 문화에 온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나 오직 너만이 진정 이 ‘도(道)’자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마명생은 그를 데리고 청청(靑城)산에 올라가 재계하고 깨끗한 단기(丹器)를 준비하게 한 뒤, 정중하게 《태청신단경(太淸神丹經)》을 그에게 전수했다. 경전 전수가 끝나자 마명생은 스스로 자신의 선업(仙業)을 성취하러 표연히 떠났다.

음장생은 경전에 따라 띠집을 짓고 연단했다. 춥고 더운 계절을 다 겪은 끝에 마침내 한 화로의 금단이 완성됐다. 그가 꺼내 복용하니 몸이 가볍고 튼튼해졌으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는 등 나이가 마치 거꾸로 흐른 듯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성취를 얻었을 때 십중팔구 구름을 타고 곤장 올라가 우화등선(羽化登仙)했을 것이다. 하지만 음장생은 도리어 그러지 않았다. 단이 이뤄졌으나 그는 즉각 승천하지 않았다. 그는 이 혼탁한 인간 세상에 계속 남기를 선택했다. 왜일까? 산 아래

래 ‘장생구시(長生久視)’의 도(道)가 있어, 예로부터 진인(真人)이 이를 얻으면 반로환동(返老還童)하고 생사를 초탈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한 번 생각이 일자 다시는 내려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영화와 부귀를 버리고 구도(求道)의 뜻을 세웠다. 오직 사람들이 피하고 말하지 않는 그 문제, 즉 ‘사람은 과연 죽지 않을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 무렵 그는 득도한 선비를 찾아냈는데, 성은 마(馬) 씨고 이름은 명생(鳴生)이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이미 신선술에 통달해 사방을 행각하며 행방이 일정하지 않다고 했다. 음장생은 가문을 버리고 그를 따라나섰다.

지극한 정성으로 스승을 모시다: 20년 비밀하며 무리가 떠나도 홀로 남아

마명생은 그를 거두었지만 애석하게도 신선술은 조금도 전수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사제가 함께 지냈지만, 마명생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저잣거리의 자질구레한 일상사나 농사에 관련된 것뿐이었고, 연단(鍊丹)이나 수진(修真)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꺼내지 않았다. 음장생은 매일 물을 길고, 비질하고, 불을 때고, 심부름을 하며 하인처럼 공손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명생 문하에 투신한 제자가 무려 10여 명이나 됐다고 한다. 그들은 유명한 사부를 배알했으니 며칠 안으로 비결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스승은 여전히 속된 일만 이야기할 뿐 비결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차 낙심하다가 이내 원망을 품었고, 마명생을 사기꾼이라고 욕하며 하나둘 소매를 떨치고 떠나버렸다.

하며 끊임없이 진상을 폭로할 것을 격려했다.

8월 1일과 8일, 프랑스 파리 파룬궁수련자들은 각각 파리 이탈리아 광장과 샤토레 거리에서 진상 알리기 행사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파룬궁 공법을 시연하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와 중공의 파룬궁 박해 사실을 알렸다. 여러 시민이 진상을 알고 난 후 박해에 충격을 표했으며, ‘진선인’의 가치에 공감했다. 미술 에이전트 사빈은 파룬궁 진상을 알게 된 후 말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이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박해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박해는 항상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유구한 문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어제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월 8일, 벨기에 파룬궁수련자들은 안트베르펜 메이르 쇼핑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진선인’을 알리며 중공의 박해를 폭로했다. 많은 사람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앙으로 인해 27년간 겪어온 박해에 대해 연대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이 주창하는 ‘진선인’ 등의 정신적 이념 역시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자히아는 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청원서에 서명하며 박해 종식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고, 인터넷을 통해 상황을 더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저는 정말로(‘진선인’이) 비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사람이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스웨덴 각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와 가족들이 스웨덴 서해안 도시 우데발라 외곽에 모여 일주일간의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 이 기간 참가자들은 함께 파룬따파 서

적을 읽고 파룬궁의 5장 공법을 연공하며 생활과 수련에서의 체득을 교류했다. 그들은 또 도심으로 나가 단체 연공, 진상 게시판 전시, 행인과의 교류 등을 통해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파룬파의 아름다움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상을 소개했다.

8월 1일 토요일, **튀르키예** 각지에서 온 파룬파파 수련자들이 이 관광 구역 내의 네브셰히르시에 모여 공법교습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1주일 전인 7월 27일, 수련자들은 이스탄불 해변 휴양지에서도 파룬궁 정보의 날 행사를 열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방문객과 현지 주민들이 파룬궁 공법을 알아보았다. 많은 이들이 공법을 배운 것이 자신들의 휴가 여행에 하이라이트를 더해주었다고 말했다. 아이셰 권뒤즈는 말했다. “저는 제가 마치 공중을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을 모두 비웠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었고 마음속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8월 1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도심에서 파룬궁 9일 학습반이 열렸다. 10여 명의 참가자 중에는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처음 참가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미 여러 번 참가했던 사람도 있었다.

8월 16일 일요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프리몬트시 인도계 커뮤니티가 인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개최했고 파룬궁수련자들이 초청을 받아 참가해 시의원, 주최 측 및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파룬궁수련자들은 현장 부스에서 시민들에게 파룬파파를 소개하고 파룬궁 진상을 알렸으며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 퍼레이드 주최 측 인사인 바타 차리야는 파룬궁수련자들의 멋진 활약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파룬궁의 진선인 도덕 이념에 찬사를 보내며 말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질입니다.”

문화 예술

귀족 가문에 태어나 속세 떠날 뜻을 품은 음장생

글/ 백로(白露)

[명혜망] 음장생(陰長生)은 동한(東漢)의 저명한 수도인으로, 그 사적은 주로 진(晉)나라 사람 갈홍(葛洪)의 《신선전(神仙傳)》에 보인다. 그는 도가에서 예로부터 존중받았는데, 득도해 신선이 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을 이루고도 세상을 잊지 않았기(丹成而不忘世)’ 때문이다. 즉 먼저 장생할 수 없는 창생들을 구제한 뒤 태청(太清)으로 비승(飛升)했다. 아래는 고적 전설에 근거해 정리한 이야기다.

신세: 귀족 가문을 뒤로하고 수도에 뜻을 품다

음장생은 동한 남양(南陽) 신야(新野) 사람으로 출신이 매우 현赫했다. 그는 광무제(光武帝)의 황후 음여화(陰麗華) 일족의 후예였다. 음씨 일가는 대대로 고관대작을 배출해 자수금인(紫綬金印, 보라색 인끈과 금도장)을 찼고, 집안에서는 종을 쳐서 식구들을 모으고 술을 벌여 놓고 식사할 정도로 당시 천하에 손꼽히는 외척 명문가였다.

상리대로라면 이런 가문에서는 공경장상(公卿將相)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음장생은 어려서부터 일족 자제들과 달랐다. 남들은 관작과 녹봉, 성색견마(聲色犬馬-음악, 여색, 사냥, 말타기)를 다룰 때, 그는 도리어 자주 홀로 뜰 앞의 아침 이슬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영화는 아침 이슬 같아 해가 뜨면 마르고, 부귀는 뜬구름 같아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구나. 사람이 비록 만관의 재산을 가지고 제후에 봉해지고 재상에 오르더라도, 백년 후에는 한 줌 황토에 불과할 뿐이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천지간에 본

작성하며 물었다. “파룬궁 수련하는 거 맞아?” 나는 말했다. “신앙은 사람 사상 속의 일이고 또 헌법이 허용하는 것이니 저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서를 쓰지 않을 때 나는 모두 지혜롭게 진상을 알렸다.

그들은 우리집에서 가져온 물건이 내 것이냐고 물었고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이 물건들을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집에서 손에 넣은 겁니까? 당신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겼고 사람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무단침입해 가져온 것이니 당신들은 주거침입 강도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또 그들에게 물었다. “이 물건들이 무슨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제게 법률 문서를 가져오십시오. 이 물건들이 누구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모든 질문에 나는 그들의 위법을 지적하고 그에게 법률 문건을 꺼내라고 했다. 국보 대대장이 마지막에 내게 서명하라고 했을 때 나는 말했다. “당신들 절차가 위법이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겼으므로 저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명혜망에서 법률을 운용해 중생을 구하는 문장을 본 것을 통해 나는 곳곳에서 그들의 위법을 지적했고 그들은 정말 그다지 기세 등등하지 못했다. 동시에 나는 내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어떠한 이기적인 생각도 줄곧 배척했고 마음속으로 내보낸 것은 오직 ‘당신을 구한다, 당신을 구한다’였다. 밤에 그들은 차를 몰고 예의 바르게 나를 집으로 보내주었다.

■ 중국 소식 ■

감사 편지 이면에 담긴 80대 노인의 10년 권리 구제 여정

[명혜망] 2026년 8월, 랴오닝성 진저우시 파룬궁수련자 우슈란(武秀蘭)은 진저우시 시장 멩화창(孟華強)에게 편지를 보내, 2026년 7월 20일부터 현지 관련 기관에서 매일 그녀에게 두 끼(점심과 저녁)의 식사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편지에서 ‘이러한 선의의 조치에 매우 감동했으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좋은 마음씨로 좋은 보답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슈란은 올해 80세다. 그녀는 진저우 시위(市委), 건위(建委), 환과원(環科院) 등 공공기관의 엔지니어로 34년 동안 일했으며, 은퇴 전에는 진저우시 환과원에서 근무했다.

우슈란은 2002년에 공식적으로 은퇴했고, 그 후 매월 3153위안의 퇴직금을 받았다. 2016년부터 진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갑자기 그녀가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퇴직금 지급이 중단된 이후, 우슈란은 주로 폐품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했고, 일부 좋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더해져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텼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줄곧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 구제와 퇴직금 반환을 요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름 모를 슬픔과 고난을 겪었다.

다음은 우슈란의 진술이다.

제 이름은 우슈란이고, 올해 80세인 홀몸노인입니다. 원래 진저우시 환과원 퇴직 직원으로 2002년에 공식 은퇴했습니다. 2016년, 진저우시 인사국(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저의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이미 10년이 됐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저의 유일한 경제적 수입원이었고, 퇴직금을 잃은 후 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큰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본 적이 없으며, 저 자신이나 우리집에 값비싼 물건을 사들인 적도 없습니다. 생활은 거의 전적으로 좋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생활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저는 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폐품을 주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몇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작은 수레를 끌거나 큰 자루를 들고 버스를 타고 아주 먼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 체력과 기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자주 물건을 깜빡해서 매번 외출하기 전에 집 열쇠를 잊지 않도록 저 자신에게 반복해서 일깨워야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지원과 폐품 줍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관련 부서에 저의 실제 어려움을 끊임없이 반영하며 법에 따라 퇴직금을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두 책임 전가와 미봉책뿐이었습니다.

2018년, 진저우시 정법위의 주도로 진저우시 환과원, 인사국, 재정국이 시 청원국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인사부 [2012] 69호’ 문서 제6조에 근거해 원래 직장에서 저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

주신 것임을 알았다.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또 두 명을 바꾸어 오면 나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그들도 모두 이해했고 갈 때마다 모두 말했다. “다음 우리 사람들이 오면 당신이 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파출소 소장도 진상을 듣고 이해했다.

한번은 소장이 몇몇 경찰을 이끌고 나를 밖의 깨끗한 흙더미 옆으로 데려갔고 나는 가운데 앉아 또 그들에게 많은 진상을 알렸다. 소장이 말했다.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 우리도 꼭 파룬궁 책을 봐야겠어.” 나는 구류소 사람들에게도 모두 진상을 알렸고 진상을 안 사람들은 줄곧 경찰에게 나를 내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에 나는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사부님께서 다시금 나를 마굴에서 구해주신 것이다.

2016년 나는 타지의 한 구치소로 납치됐다. 나는 자신에게 과시심이 있고 자신이 괜찮으며 법리를 잘 안다고 느끼고 어디에 필요하면 어디든 가면서 마치 수련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시심이 팽창해 그 지역의 사람을 구하는 환경을 교란했음을 찾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다. ‘사부님, 제자가 틀렸습니다. 제자는 다시는 자신이 법리에 밝다고 과시하지 않을 것이고 도처에 가서 과시하며 그곳 환경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한 경찰이 내게 악랄하게 말했다. “당신은 못 나가.” 나는 속으로 부정했다. ‘당신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십여 일 후 나는 정념으로 마굴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내게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위대한 사부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마굴에서 구해주셨다.

2020년 나는 공안국으로 납치됐고 국보 대대장이 내게 조서를

같았다. 내 마음속에도 샅된 생각이 위로 솟구쳤다. ‘우리집에서 이렇게 많은 물건을 찾아냈으니 사악이 나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어쩌면 심각할지도 몰라.’ 나는 즉시 부정했다. ‘아무도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나를 건드려선 안 돼!’

경찰이 와서 나를 불법으로 심문했고 나는 진상을 알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진상을 알렸으며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정념을 했고 내가 경찰에게 말한 것은 무조건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뿐이었다. 십여 일 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가자 가족과 친척 수련생들은 내가 몇 년형을 선고받을 거라 수소문해 들었다며 내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다.

한번은 내가 밖에서 진상 표어를 붙이다가 한 파출소로 납치됐는데 나는 사악의 어떤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교대로 나를 불법 심문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내가 시멘트 바닥에 누워있을 때 당직을 서던 젊은 경찰이 구두로 내 손발을 짓이기고 담배불로 몸을 지졌지만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나는 무심코 눈을 떴고 기왕 왔으니 진상을 알리자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파파는 정법(正法)이고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며 우리는 수련을 통해 도덕을 향상시켰고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며 사람들과 선하게 지낸다고 알려주었다. ‘천안문 분신사건’은 중공이 파룬궁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알렸다. 그들은 듣고 이해한 후 말했다. “다음 조 사람들이 오면 당신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을 구하라고 내게 일깨워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퇴직금 지급은 회복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연석회의 요록’의 법적 효력에 대해 여전히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신앙의 합법성. 저는 국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장국이 이를 이유로 저에게 경제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억울함에 억울함을 더하는 것이며, ‘일사부재리’의 법적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2. 인사국 및 사회보장센터가 인용한 ‘인사부 [2012] 69호’ 문서는 ‘사회보험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해당 문서에 ‘이 문서는 비공개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비공개 문서는 행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설령 인사국, 사회보장 부서가 ‘인사부 [2012] 69호’ 문서에 따라 집행한다고 해도, 저는 이미 은퇴한 인원이므로 제9조의 규정이 더욱 적용돼, 형기 만료 후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을 회복하고 사회보험(연금) 통합 관리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인사국이 선택적으로 제6조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 근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제 합법적 권익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4. ‘연석회의 요록’에서 관련 연서 부서들은 모두 직인을 찍지 않았고, 해당 문서의 형식도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인사국, 재정국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고 제 퇴직금 대우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1년이 넘도록 입건되지 않았고, 입건 거부 판결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입건 규정에 위배되며, 명백히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등록 입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2026년 4월, 제가 철도운송 법원에 문의하러 갔을 때 ‘소장이 분실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법관법’ 제46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위법 및 규율 위반 행위에 속합니다. 5월에 제가 다시 법원에 문의하러 갔을 때 ‘소장을 찾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입건할 수 없고 판결을 내릴 수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 사건의 상황이 특수해 ‘내부 규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관련 ‘규정’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거절당했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저는 또 진저우시 인사국에서 송달한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국은 저의 직무 이행 신청을 청원 사항으로 처리했으며, 답변에 불복할 경우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고, 동시에 관련 부서가 동일한 사항에 대한 저의 반복적인 청원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저는 진저우시 행정심판 수리센터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진저우시 인사국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했는지, 저의 직무 이행 신청을 청원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합법적인지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사국이 저의 직무 이행 신청을 청원 사

좀 봐. 그렇게 도량이 넓어서 전남편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는데도 여전히 찾아가 문안하고 돈도 주고 물건도 사 주잖아.”

4. 사악한 강제노동 및 징역형 박해를 타파하다

박해 초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고발당해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구치소에서 나는 시시각각 법을 외우고 발정념을 하며 줄곧 사악한 박해를 부정했다. 나는 내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박해를 불러왔음을 찾아냈고 발정념으로 더러운 두려운 마음을 제거했다.

나는 고요함 속에서 내가 한 방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고 방의 자물쇠를 보았으며 발정념으로 곤경을 제거했다. 내가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또 발정념으로 벼랑의 위험한 상황을 제거했다. 나는 자신이 커다란 쇠우리에 갇힌 것을 보고 발정념을 했다. 내 공력이 자라자 쇠우리도 자랐다. 내가 하늘만큼 커지자 나를 덮은 쇠우리도 하늘만큼 커졌고 나는 기진맥진했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뭔가 잘못됐어. 나는 무슨 쇠우리 같은 건 원하지 않아, 난 마땅히 뛰쳐나가야 해.’ 나는 단번에 쇠우리를 손에 쥐고 발정념으로 제거하고 철저히 소멸해버렸으며 아무도 나를 관찰할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나는 구세력을 대할 때는 철저히 부정해야 하고 박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박해를 반대해서는 안 되며 쇠우리 안에서 쇠우리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사악의 각종 박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나는 대법제자이므로 아무도 나를 관찰할 자격이 없다.

어느 날 많은 경찰이 왔는데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

파룬궁을 반대하지 마세요. 반드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세요. 그래야 당신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그 후 전남편은 소뇌위축증에 걸려 정신이 맑지 못했다. 그의 새 아내는 그가 이런 모습을 보자 떠나버렸다. 전남편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그를 돌보았다. 어느 날 수련생이 내게 전화를 걸어 전남편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아 멀리 사는 딸과 아들들이 모두 왔으니 그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 나는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해야겠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먹을 것을 많이 사서 갔다.

그들 집에는 사람이 와 있었다. 예전의 첫째 시누이, 둘째 시누이, 셋째 시누이, 넷째 시누이, 두 시동생이었는데 어떤 이는 온 가족을 데려왔고 어떤 이는 아이를 데려왔으며 그들은 나에 대한 평가가 모두 매우 좋았고 나를 아주 인정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해주었다. 시동생의 아내도 나와 함께 대법서적을 보았고 시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었다.

그 후 나는 또 전남편을 두 번 찾아가 그에게 정중성명(鄭重聲明)을 쓰게 했는데 그가 전에 대법서적을 태우고 대법을 욕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는 모두 동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이후 전남편의 여동생이 병에 걸렸고 나는 또 물건을 사서 그녀를 문안하고 그녀 온 가족에게 더 나아가 대법 진상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전 영원히 언니를 진짜 새언니로 인정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큰시누이 집 아이들도 이미 아주 많이 컸는데 나를 보자마자 끌어당기며 “전 외숙모를 큰외숙모로 인정해요”라고 말했다.

시댁이 속한 대대의 서기가 말했다. “저 ○○(나를 가리킴)를

항으로 처리한 것은 ‘소송과 청원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성격 규정의 오류에 속합니다. 청원 재조사 절차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체해 논쟁을 행정심판 수리 범위 밖으로 배제했습니다. ‘동일 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청원은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리를 거부해 법에 따라 구제를 모색할 저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인사국이 법정 직무 이행을 거부한 행위는 이미 행정 부작위에 해당하며, 청원 절차로 법정 행정 절차를 대신하고 절차적 형식으로 실체적 위법을 은폐한 그들의 수법은 저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심판 신청서’ 참조)

심판 수리센터는 제 심판 신청 수리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저의 ‘심판 신청’ 중에 파룬궁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저는 법에 따라 권리를 구제하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여정이 이토록 험난하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곳곳에서 막히고 도처에 제한이 설정돼 있어, 저는 정의의 빛이 희미하게나마 반짝이는 것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법에 따라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안 인사국, 철도운송 법원 등 부서는 공공연하게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소위 ‘내부 규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저의 퇴직금 회복을 막고, 법원 입건 및 행정심판을 저지했습니다.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민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법의 권한 부여가 없으면 곧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관련 행정, 사법 부서가 이러한 공개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집행 문서나 사법 근거로 삼는 것은 모두 위법 행위이며, 동시에 관련 행정 및 사법 인원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사법, 공정한 법 집행’이 합법적인 법적 기초를 잃는다면 그것은 빈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공권력 남용의 직접적인 결과는 반드시 정부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갈시키고 민심을 잃는 것입니다.

올여름, 진저우 지역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저의 작은 집은 통풍이 되지 않아 저녁에는 종종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신앙을 견지하고 진실을 말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는 이유로 ‘사이비 종교’로 취급돼 처벌받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노년에는 퇴직금 지급까지 중단됐습니다.

이제 저는 80대의 홀몸노인입니다. 10년간의 민원 제기에도 민생을 보장해야 할 인사국, 사회보장 부서는 법을 무시하고 저의 유일한 경제적 수입원이자 생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소송을 수리하려 하지 않고 저의 합법적인 소송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거듭된 민원 제기와 거듭된 신청은 번번이 법적 권리 구제의 문밖에서 가로막혔습니다. 80대 홀몸노인인 저는 늙어서 의지할 곳도, 부양받을 곳도 없게 돼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진저우시 생태환경보호센터 일행 세 명이 우리집에 와서 환경보호센터의 결정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점심때 센터에 와서 점심과 저녁, 두 끼의 식사를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에는 센터에서 일부러 사람을 보내 도

허심탄회하게 가르침을 청했다. 남자 수련생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게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는 구치소에서 경찰 18명을 구한 이야기를 했고 또 그의 많은 정념정행의 예를 이야기했으며 내게 정념의 도움을 주었다.

이해를 통해 나는 모든 수련생의 장점을 발견했고 모든 수련생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됐으며 나와 수련생의 간격이 허물어졌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은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나는 비학비수(比學比修)하며 내 부족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연을 소중히 여겨 전남편 일가를 구하다

나는 대법 수련 때문에 강제로 실직당하고 불법적으로 노동수용소에 갇혔다. 전남편은 화도 나고 두려워서 집에서 내 대법서적을 불태웠다. 내가 박해를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단호히 내 수련을 반대하며 내게 가정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을 원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나는 “난 둘 다 원해요”라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안 돼, 난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대법이 내게 생명을 줬으니 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내가 불법적으로 강제노동을 당하는 기간에 그는 이미 유부녀와 함께 있었다.

전남편은 나를 끌고 민정국으로 갔고 혼자 들어가 이혼 수속을 밟았다. 이튿날 나는 돌아가서 책 몇 권을 가져왔다. 그 여자는 이미 집 안 온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으며 원망심도 없었고 단지 그들이 매우 불쌍했을 뿐이다. 그들은 모두 난감해했고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이 박해로 내가 가정을 잃게 됐어요. 파룬따파는 내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 알게 해줬고 내 온몸의 병이 다 나았으니 당신들은 제발

은 많은 사람을 도왔고 나는 정말 이 노수련생을 팔목상대하게 됐으며 더욱이 어르신들의 성격이 아주 좋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내가 단언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또 한 명의 남자 수련생이 있는데 그는 전통문화를 많이 알고 입만 열면 고대 이야기를 한 토막 꺼낼 수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법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전통 이야기만 할 줄 아는구나’라고 여겼다. 접촉을 통해 나는 그가 수련을 아주 착실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매일 한 끼를 먹고 식사가 매우 소박했다. 돈이 많지만 절대 돈을 써서 자신을 즐기지 않았고 일 년 내내 모두 매우 소박한 옷이었으며 새 옷을 거의 사지 않았다. 그는 개인 수련이 매우 엄격해서 박해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한번은 경찰이 그의 집에 갔는데 집에 수련생이 있어서 그는 경찰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경찰을 따라 파출소에 갔다. 파출소에서 한 경찰이 말했다. “당신들은 무슨 진선인 같은 걸 믿어선 안 돼. 파룬궁은 안 좋아.” 그가 경찰에게 물었다. “당신은 경찰이고 저는 서민입니다. 당신이 진선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제게 뭐가 좋은 건지 알려주겠습니까? 진선인이 안 좋다면 가악투(假惡鬪-거짓, 악, 투쟁)가 좋다는 겁니까?” 그 경찰은 말문이 막혀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위에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경찰은 그를 집에 돌아가게 했다. 그와의 교류를 통해 나는 내 수련의 부족함을 보았고 내게는 바로잡아야 할 현대 행위 관념이 많으며 모든 향락을 탐하는 마음을 더욱 닦아버려야 했다.

나는 또 내가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다’고 여겼던 한 남자 수련생 집에 갔다. 이번에 나는 진심으로 자아와 선입견을 내려놓고

시락을 우리집 문 앞까지 배달해 주었고, 둘째 날에는 제가 센터 경비실에 가서 저를 위해 준비된 도시락을 받아 왔습니다. 이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비록 제 생활은 몹시 고단하지만 마음은 아주 편안합니다. 저는 양심에 어긋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국가의 법률이나 법규를 위반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역사는 제게 강요된 모든 억울함을 밝혀줄 것입니다.

저 또한 더 많은 분들이 마음속의 선함과 양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며, 특히 파룬파파 수련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지나 진실이 밝혀졌을 때 더 많은 분에게 큰 아쉬움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톈진시의 76세 파룬궁수련자 류즈메이(劉志梅)는 2026년 8월 12일, 톈진시 허둥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녀가 중국공산당(중공)에게 두 번째로 불법적인 판결을 받은 것이다. 류즈메이는 2025년 누군가의 악의적인 고발로 톈진시 허둥구 동신 파출소 경찰에 의해 ‘사교(邪教)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으로 허둥구 검찰원과 법원에 모함당해 넘겨졌다. 2026년 6월 18일 허둥구 법원의 불법 재판에서 류즈메이는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은 법

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녀는 경찰이 그녀에게 씌운 죄명을 부인했다. 공소인은 반박하지 못했고 불법 재판은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산둥성 칭다오시 황다오구의 64세 파룬궁수련자 명후이링(孟慧玲)은 2026년 1월 12일 밤, 쉼자다오 파출소에 의해 불법적인 가택수색과 납치를 당했다. 이후 지모시 푸둥촌에 위치한 칭다오시 제2구치소에 감금됐으며, 8월 14일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6월 10일, 칭다오시 황다오구 법원은 칭다오시 제2구치소에서 명후이링에 대한 첫 번째 불법 재판을 열었다. 7월 22일, 두 번째 불법 재판을 열었다. 명후이링은 성실한 성격에 체구가 왜소해 구치소에서 범죄 용의자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 명후이링의 남편 역시 파룬궁수련자로 수년 전 박해로 사망했다.

후난성 사오양시 파룬궁수련자 리칭전(李慶軍)은 2026년 7월, 주저우시 루쑹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 받았다. 2025년 7월 21일~23일, 주저우시 루쑹구公安분국 관할인 룽취안 파출소, 쟈닝 파출소, 331공장 인근 파출소와 주저우 허탕구公安분국의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公安기구)대대, 법제대대 및 산하 쑹자차오 파출소 등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파룬궁수련자들의 여러 단체 법공부 팀을 기습해 리칭전을 포함한 여러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류춘친(劉春琴)은 4년형, 류룽페이(劉蓉培)는 3년 6개월형, 정충(鄭瓊)은 3년형, 리칭전은 3년 3개월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이미 항소했다.

산둥성 허쩌시 산현의 58세 파룬궁수련자 우쥐안(武娟)은 2026년 7월 16일 산현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眞·善·忍)의 빛이 우리 공간장을 비추게 해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선인의 법리로 자신을 지도하고 모든 생명을 선하게 대하며, 구세력처럼 다른 사람만 바꾸려 하고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나는 시시각각 내가 내보내는 일사일념을 경계했다. 자신이 고통스럽고 불쾌함을 느낄 때는 이기적인 것이고 내 명예, 이익, 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모두 자신이 아니며 모두 사람의 근본 집착이다. 이 점을 깨달았을 때 나는 즉시 마음을 내려놓았고, 불공정한 대우·억울함·굴욕을 겪는 것은 모두 허무한 가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련도 한결 단순해졌다.

나는 나이가 매우 많은 한 수련생과 접촉한 적이 있는데 그는 예전에 까닭 없이 내게 화를 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이 어르신 수련생의 성격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기에 나는 이 어르신 수련생이 성격이 나쁘고 나이를 내세우는데 아직도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닦아버리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한번은 수련생을 구출하기 위해 나는 어르신을 찾아가 협력했다. 나는 어르신 집에 가서 내가 몰랐던 어르신의 다른 일면을 보았다. 그는公安국, 파출소, 감옥에 여러 번 가서 수련생을 구출했고 정념이 아주 강했다. 어르신은 변호사를 선임해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을 말했고 또 그가 아주 먼 곳까지 가서 불법적으로 감금된 수련생을 만난 체득을 이야기했다. 겉보기에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가 경찰을 대할 때는 자비롭고 또 예의 바르게 대했고, 나이를 내세워 남과 강경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법률 측면과 대법 진상 측면에서 경찰을 탄복하게 했다. 어르신의 지혜와 담력

로 사심이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결국 자신은 바빠서 법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자신을 수련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법공부를 하고 명혜망 교류 문장을 보면서 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길은 자신이 걸어야 하며 만약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면 자신이 자신의 길을 걸어 나오지 못한 것이고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 나는 사람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내 과시심과 환희심 때문에 수련생이 의지하고 사람 마음을 일으키게 하지도 않았다.

예전에 나는 항상 수련생들의 무리 속에서 일하느라 바빴지만 지금 나는 정말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람의 정, 사람 마음, 사람의 생각을 닦아내야 하며 시간이 있으면 마땅히 사람을 더 많이 구하러 가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겉보기에 요란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 속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어떤 일에 부딪히면 법으로 가늠하고 법에 있지 않은 일에는 단호히 영합하지 않는다. 사람의 것에 집착하면 중생을 마음에 담을 수 없고 생명으로 맺은 신성한 서약을 점점 잊게 됨을 깨달았다.

2. 자비로 모든 수련생과 중생을 대하다

예전에 나는 항상 수련생의 좋지 않은 사유를 보고 그들의 집착을 보았는데 그것이 내 집착을 형성했고 내가 본 이 사람의 단점으로 그들을 평가하며 ‘그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중에 법공부를 하고 명혜 교류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는 사람마다 지닌 부정적인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은 모두 구세력이 중생에게 강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마땅히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모든 생명에게 전해야 하고 진선인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변호했다. 7월 24일 산현 법원은 형사 판결문을 내고 우쥘안에게 부당하게 3년 2개월형을 선고했으며, 1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다. 2026년 2월 4일 아침 7시 10분경, 사복 차림의 국보 직원 7~8명이 우쥘안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강제로 끌고가 허쩌 구치소에 감금했다.

후난성 이양시 다통후구의 62세 파룬궁수련자 량젠궈(梁建國)는 장기간 중공 검찰·법원·공안 시스템의 박해를 받았다. 2025년 11월 6일, 그는 첸산홍진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납치돼 다통후 구치소에 감금됐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이미 3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6년 8월 5일에 감옥으로 보내졌다. 이번이 그가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 번째이며, 자세한 상황은 아직 조사 중이다.

네이멍구 츠핑시 홍산구의 63세 파룬궁수련자 왕쑤친(王素琴)은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6년 새해 첫날 두 번째로 경찰에게 납치돼 감금됐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왕쑤친은 이미 홍산구 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이는 그녀가 중공 당국에 의해 세 번째로 감옥에 갇혀 박해받는 것이다. 2001년, 2년 강제노동 처분을 부당하게 받았다. 2012년 7월 31일, 왕쑤친은 홍산구 공안단지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납치돼 3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후난성 화이화시 천시현 파룬궁수련자이자 80세가 넘는 리웨이잉(李月英)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이념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6년 전 천시현 공안국, 검찰원 경찰에게 납치 및 모함당했고, 4년 전 위안링현 검찰원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됐으며, 3년

전 위안링현 법원에서 부당하게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위안링현 법원은 그녀가 고령에 몸이 약한 것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 그녀를 강제로 수감해 박해하려 했다. 2026년 7월 법원경찰은 결국 86세 리웨잉을 창사시 여자감옥으로 강제 이송했다.

원난성 쿤밍시 파룬궁수련자 푸바오위(普寶玉)는 향년 65세로, 2025년 9월 9일 원난성 제2여자감옥에서 부당한 징역형을 마치는 날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돌연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감옥에서 정체불명의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았으며, 그녀의 사망 원인은 지금까지도 의문투성이다. 그녀는 세 차례 불법적인 선고를 받았고, 누적된 부당한 형량은 12년 4개월에 달했다. 2019년 5월 12일, 푸바오위는 관두구 국보 대대[나중에 정보(정치 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로 개칭]에 여러 달 동안 미행당한 끝에 비밀리에 납치됐다. 그녀는 이후 비밀리에 6년 4개월형을 선고받고 원난성 제2여자감옥에서 장기간 감옥경찰의 엄격한 통제하에 박해를 받았다.

히 바랐지만 가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대법을 이용해 가족들의 재난과 어려움을 없애주려 한 것이었고, 동시에 나 자신도 대법 수련이 내 신체와 가정 여러 방면에 가져다준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었으니 내 근본 집착이 버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에 부딪히면 모두 사람의 정과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보았고 일에 부딪혀도 법에 서지 않았다. 문제에 부딪히면 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늠하지 않았고 항상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으니 사람의 정으로 일을 처리했다. 사람들과의 교류 중에도 나는 종종 누구누구가 내 관념과 일치하고 누구누구가 감정적으로 나를 이해해주며 누구누구가 항상 내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았고 그런 사람과 기꺼이 사귀고 협력하며 상대방에게 물질적 혹은 정신적 보답을 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 일을 부탁하면 나는 상대방이 나를 높이 평가해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부탁하면 다 들어주었다. 우리집은 모두의 쉼터가 됐고 누가 오든 나는 최선을 다해 대접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 같이 쇼핑을 가자고 하며 마음속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어주었고, 또 어떤 사람이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면 내가 가서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도 있었다. 어느 집 부부가 싸우면 나도 가서 말리곤 했다. 내가 법공부를 적게 하고 일에 부딪혀도 법에 있지 않다 보니 많은 소중한 시간을 빼앗겼고 중생을 구할 소중한 기회도 많이 잃었다.

예전에 나는 항상 내 능력이 뛰어나서 누가 일이 있어 나를 찾으면 가곤 했고 무척 바쁜 것 같았다. 이 수련생의 컴퓨터를 봐주고 저 수련생에게 수련교류 오디오를 설치해주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일을 부탁해 오면 마땅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야말

근본 집착을 제거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다

글/ 지린성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지 29년이 됐다. 수련 중에 대법에 대한 반석처럼 확고한 믿음도 있었지만 집착을 버리지 못해 넘어지고 후회하며 다시 분발한 적도 있었다. 아래에 내 수련 중의 작은 체득을 적어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리고자 한다.

1. 이기적인 근본 집착에서 벗어나다

수련 전 나는 온몸에 증병을 앓아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고 병원에서는 내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다. 수련 후 내 병은 하루밤 사이에 자취를 감췄다. 사부님께서 나를 고향에서 구해주신 것이다. 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모두 신체적인 원인으로 생로병사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며 그들이 왜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따파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기한 효과를 일일이 알려줬고 가족들은 모두 각기 다른 정도로 믿고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다시 몸에 병증이 나타나자 어떤 사람은 대법을 그다지 믿지 않았다. 나는 줄곧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왜 수련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 정말 혜택을 볼 텐데!’

20여 년 수련한 이후 내 몸에도 약간의 병엽 고비가 나타났다. 나는 갑자기 대법에 대한 내 근본적인 인식이 정말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대법이 내게 건강한 몸을 줄 수 있다는 데 집착했고 내 가족들도 그 속에서 혜택을 받기를 간절

수련 교 류

수련: 생명 매 순간의 선택

글/ 중동 지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최근에 겪은 한 가지 경험을 여러분과 교류하렵니다. 이번 경험으로 새로운 내적 깨달음을 얻었고, 속인 중의 일과 수련의 길 사이의 경계를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수련이 차지하는 진정한 위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우리집은 아들 결혼식이라는 큰일을 맞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을 알고 있었습다. 번거롭고 자잘한 일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 잦은 이동, 수많은 일정 수배 및 다방면의 신경 쓰이는 일들이 제 생활의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매일 각종 일에 매달려 정신 없이 돌아가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기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로서 법공부와 연공을 할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저는 자주 마음속으로 ‘결혼식 준비가 끝나면 예전의 수련 상태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다 마친 뒤로 수련을 미뤘고 여유가 있을 때만 법공부와 연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쏘살같이 흘러갔고 그런 ‘여유 시간’은 거의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축하 행사 내내 상서롭고 평온했으며 모든 가족과 하객들에게 아름답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무거움과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이 슬픔은 육체적인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정진하며 수련하지 못했고, 속인의 일이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찾으며 제 잘못이 주객이 전도된 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속인 중의 일이 제 생명에서 수련의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나는 시간이 날 때만 수련하는 것인가? 일상적인 책임이 없을 때만 수련자인가? 내가 선택한 수련의 길은 생명의 매일 매 순간에 속해야지, 속인의 일을 다 처리하고 남은 약간의 여가 시간에만 속해서는 안 된다.’

그때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수련을 부차적인 위치에 둔다면 설령 속인 중의 일이라도 예상만큼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생각이 수련자의 정념으로 이끌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처리할 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며 집착하고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이 진행되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땅히 있어야 할 평온함과 맑음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깨어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법공부, 연공, 발정념, 정념 유지, 진상 알리기 등 수련자의 본분을 완수하기로 말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저의 최우선 임무가 돼야 하며 절대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을 소홀히 한다면 하루 전체가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수련 안배를 회복한 이후, 수련 상태가 제고됐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도 더욱 순조롭고 조화로워지는 것을 분명히

근본 원인은 사상 관념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반성을 통해 내 부족함을 찾았다. 부족함을 알았으니 마땅히 거센 물결을 헤치며 용감하게 나아가야 했다.

얼마 전 진상을 알리러 큰 장터에 막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질주해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또 불안해졌다. ‘떠나야 할까 아니면 계속 진상을 알려야 할까? 만약 들켜서 붙잡히면 어떡하지?’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대법제자다! 사부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것이 애초에 대법제자를 관할할 수 없거늘 무얼 두려워하는가? 이건 나에 대한 시험이 아닌가? 사부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어떠한 공포에 직면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지 시험하며 진정으로 사부님을 믿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문득 웃음이 났다! 그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태연하게 장터로 들어가 계속 진상을 알렸다. 경찰 두 명이 장터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떠나는 것이 보였다. 알고 보니 그들은 정말 나와 무관했다! 그 이후로는 다시 경찰이나 경찰차를 만나도 두렵지 않았고 머릿속에 즉시 반응이 왔다. ‘그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는 대법제자이므로 오직 사부님께서 관할하신다.’

물론 수련은 순조롭기만 한 것만은 아니어서 늘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법을 기준으로 삼아 시시각각 부족함을 찾으며 올바르게 않은 사상 관념을 바로잡기만 한다면 반드시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수련에 대한 작은 깨달음이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의 사상 반응에 주의하며 수련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은 큰 장터에서 한 노인을 만나 진상 잡지 한 부를 그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으며 집에 가서 보라고 했다. 뜻밖에도 노인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잡지를 집어 들고 넘겨보기 시작했다. 원래 그에게 진상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처음에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는 행동이라 여겼다. 그리고 속으로 ‘사부님께서도 거듭 안전에 주의하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다. 내 행동이 대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생각해보니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대한 핑계를 찾는 것이었다! 왜 떠났을까? 결국은 두려웠기 때문이다! 붙잡힐까 봐 두렵고 신고당할까 봐 두려우며 감옥에 갈까 봐 두려운 등 수많은 집착심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집착심을 제거하지 않고 원만할 수 있겠는가? 답은 불 보듯 뻔하다.

왜 두려워했을까? 나는 스스로를 사부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는가? 사부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관할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여전히 두려워했을까?

깊이 반성한 끝에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사상 깊은 곳에 뿌리박힌 올바르지 않은 관념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관할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진상을 알리러 가기만 하면 그것의 관리를 받고 그것에게 붙잡히며 박해를 받는다고 여겼다. 만약 그것이 나와 무관하고 나를 관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래도 두려워했을까?

보았습니다. 마음은 더욱 차분해졌고 가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도 더 많은 인내심과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수련은 생활과 동떨어질 수 없으며 더구나 한가할 때나 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은 우리 생명의 근본이며 세상만사는 모두 이를 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놓을 때 수련의 길은 더욱 뚜렷해지고 속인 중의 일도 우리를 빗나가게 하지 않으며 자연히 제자리를 찾아 질서정연해질 것입니다.

이번 교류가 다른 수련생들에게도 일깨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바쁜 시기라 할지라도 수련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수련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한결같은 선택이 되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자비로우신 사부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해 언젠가 사부님을 따라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정념을 중시하고 자신을 청리하는 것도 중시해야 한다

글/ 산난(陝南) 대법제자

[명혜망] 발정념을 중시하고 자신을 청리(淸理)하는 것도 중시해야 한다. 대법 정체(整體)의 한 분자로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제때 자신을 잘 청리하지 않으면 사악은 자신이 집착을 가진 공간에 숨게 된다. 자기 범위 내의 사악을 잘 청리하면 전체 사악 총량도 줄어들며 이 역시 정체를 잘 청리하는 일부분이다.

20여 년 동안 나는 개인적으로 온갖 외부 교란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이는 내가 장기간 들어온 발정념 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평소 나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발정념을 하고 자신을 청리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20년 전 초기에 이미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어 전문적으로 자신을 청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동시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발정념을 하는 습관도 들였는데 나는 이를 일상 관리(방호 청리)라고 부른다.

나는 이렇게 했다. 평소 정념이 강하지 않을 때 한가해지면 자신이 집착하는 부분을 겨냥해 ‘청리’라는 일념(一念)을 더했다. 색욕심이 무거우면 색욕 방면의 구세력 배치를 중점적으로 청리하고 안전이나 신체, 경제적인 방면 등을 청리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공간장을 청리했다. 여기에 더해 매일 꾸준히 시간을 내어 전문적으로 청리했는데 세월이 흐르며 지속하니 그 청리 수량과 효과는 눈에 띄는 정도였다.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흘 일하고 이틀 쉬듯 꾸준히 하지 못했지만 사부님의 배치와 인도하에 비로소 꾸준히 잘할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점심때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잤다. 이미 언제 어디서나 발정념을 하는 데 습관이 돼 있어 엎드리자마자 습관적으로 ‘자신을 청리한다’는 일념을 더했다. 생각이 나오자마자 강력한 레이저 한 줄기가 체내 왼쪽 갈비뼈 아래 공간 범위로 뻗어 들어가 아주 큰 검은 물질 한 덩어리가 분쇄되는 것을 보았다. 실제 이때는 평소 발정념을 할 때만큼 정념이 강하지 않았고 단지 일념을 더했을 뿐이다. 이 일에 격려받아 나는 장기간 꾸준히 잘하기로 결심했다. 우리에게 평소 이런 자투리 시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이나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일하다 한가할 때, 이야기할 때, 운전할 때 등이다. 만약 장기간 이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꾸준히 한다면 총량도 매우 클 것이다. 효과 역시

왜 해내지 못하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운을 차리고 정념을 강화해 사부님의 가지 아래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그 수련생은 대법 안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을 떠났던 한 수련생도 이 일로 편견을 바꾸고 정념을 일으켜 점차 대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으니 제 모든 것은 사부님의 것입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모든 것을 해주셨으며, 매 층차마다 제자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부님의 은혜는 호탕(浩蕩)하십니다! 저는 오직 정진하며 세 가지 일을 잘해 사부님의 자비롭고 위대하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수련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상은 제가 수련한 한 시기의 경험과 체득이니, 법에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자신의 사상 반응에 주의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정진이란, 그것은 바로 그가 시시각각 자신의 언행에 주의할 수 있고, 자신의 사상반응에 주의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할 수 있고, 늘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곧 개인수련 중에서 비교적 정진하는 것이다.”(각지 설법7-미국수도법회 설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시각각 자신의 언행에 주의하고 자신

의 정각 발정념 외에도 발정념 횟수를 늘리고 시간을 연장했으며, 때로는 연속해서 1시간 넘게 발정념을 해 대법을 파괴하고 제가 대법을 실증하는 것을 교란하는 일체의 사악을 제거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연공 시간도 늘렸습니다. 매번 연공을 마칠 때마다 땀을 비 오듯 흘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연공 전에는 몸이 오그라들어 마치 한데 묶인 것처럼 딱 조이는 느낌이었지만, 연공 후에는 단번에 몸이 짹 펴지면서 아주 활가분해져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비록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의지를 단련했고, 신통을 가지(加持)했으며, 본체(本體)를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심성이 제고됐고 몸에도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는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매번 대변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서서히 배가 그렇게 아프지 않게 됐고 종아리 부기도 가라앉았으며 몸이 덜 괴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2022년 8월 무렵이 되자 두 개의 종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굶었던 등도 곧게 펴졌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예전의 상태를 회복해 몸이 가볍고 튼튼하며, 기력이 충만해지고 허리가 꼳꼳해졌습니다.

이 일은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좋은 작용을 일으켰으며, 그들은 대법이 너무나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병원에 갔다면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배를 가르고 뼈를 깎아내야 했을 텐데 그 효과가 꼭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로 인해 사부님과 대법에 진심으로 탄복했고, 속인 친구는 이 일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했습니다. 병업 고비가 심각해 장례 준비까지 했던 한 수련생은 당시 저의 경험과 직접 체득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수련생이 해냈는데 나는

매우 뚜렷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

여기서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병업 중에 있는 수련생은 더욱 힘을 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혜망의 ‘앙망사은(仰望師恩)’이라는 글에서 저자 수련생이 개인 천목(天目)으로 본 것을 묘사했다. 구세력은 수련생의 발정념에 대한 믿음을 타격하기 위해 병업에 대해 당신이 97%까지 청리했을 때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하고 98%가 돼야 뚜렷한 변화가 있으며 99%가 돼야 대략 좋아지게 만든다. 이는 내 개인적인 판단과 완전히 똑같았으며 나는 구세력이 이렇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병업 중인 수련생이나 그들을 돕는 수련생들이 청리를 해나가다가도, 일시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으면 신심을 잃고 그만두는 바람에 중도 하차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다른 방면도 마찬가지다.

특히 안전 방면에서 긴급 상황을 만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목숨 걸고 발정념을 해야 한다. 10년 전 우리 지역에 광범위한 박해가 발생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한 수련생은 다른 수련생들의 말에 따르면 그 한 사람만 며칠 밤낮을 목숨 걸고 발정념을 한 결과 마침내 광범위한 박해가 해체됐고 수련생들도 모두 풀려났으며 일반인조차 정념을 갖고 우리를 대신해 말을 했다. 수련생들은 크게 고무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장기간 꾸준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신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세월이 흐르며 잘해 나간다면 그 청리 수량과 효과는 예견할 수 있다. 작은 생각을 여기에 적어본다.

중국법회 투고에 관한 소고

글/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을 열자마자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통지’가 한눈에 들어와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성대한 모임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있을까요?

해마다 법회 원고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늘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위에 세 가지 일을 착실하게 하며 정법수련의 길을 굳건히 걷고 있는 수련생이 적지 않은데, 법회 투고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로는 법회 투고에 대한 이런 수련생들의 인식에 편차가 있고 일부 관념에 가로막혀 법에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수련은 주로 마음을 닦는 것이라 형식적으로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며, 모두 마음으로 수련하고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법회 투고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투고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법회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수련 형식입니다. 1999년 중국공산당(중공)이 대법 박해를 시작한 이후 매년 한 번 열리는 명혜망 중국법회는 유일하게 중국 대법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회입니다. 명혜망 수련생이든 중국에서 참여하는 수련생이든 해마다 이 일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명혜망은 매년 법회 때마다 투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중국 수련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법수련과 사람을 구하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 일에 깊은 수

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법수련, 대법실증, 중생구도의 각도에서 문제를 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와 갈등에 부딪혔을 때 저는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사부님과 대법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속인이 대법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해 중생구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 예전과는 달라졌고 비교적 통제하기 쉬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천하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고 제고가 있었으며, 예전처럼 조급해하거나 화를 잘 내지 않게 됐고 전보다 평온해졌습니다. 이를 본 아내도 예전처럼 자기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우리 두 사람은 화목해졌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모든 수련생이 이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 자신의 수련 외에 현재 가장 큰 일이 바로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직접 중생을 제도하고 있고, 그것이 직접 미래의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은 대법과 대법제자의 위대함 —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신들이 여전히 중생을 구도(救度)하고 있음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각지 설법 2-미국 플로리다 법회 설법)

저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기에 서둘러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다른 수련생들과 서로 협력해 밖으로 나가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큰길이든 골목길이든, 논밭이든 도로든 가리지 않고 가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추운 겨울이든 무더운 여름이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꾸준히 견지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견지하고, 법으로 자신의 수련을 지도하며, 자신의 정념(正念)을 충실히 다졌습니다. 발정념을 강화해 매일 네 번

이 중요한 순간, 생사의 고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확고하게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는 것을 선택했으며 제 모든 것을 사부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지하게 법공부를 하며 대조해 보았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안으로 찾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스스로 정진하지 않고 수련을 게을리했으며, 다섯 가지 공법을 때로는 다 연마하지 못했고, 진상을 알리려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것을 교란하고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해하고 다투며 화를 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물려서지 않고 맞고 틀림을 따졌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법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서 정법시기 대법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련생을 교란하고 가로막았다면 사악과 한패가 된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투고 화를 내는 것 등은 바로 마성(魔性)이 아닙니까?! 속인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으니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부님께서 저를 위해 감당하시게 했으니 정말 사부님께 죄송했습니다! 저는 바로잡고 만회하며 대법에 동화하고 법으로 자신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고쳐야 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지낼 때 저는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며 아내에게 양보했지만, 때로는 참지 못하고 부부 사이니까 우리집에서는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또 화를 냈습니다. 저는 원인을 찾아보았고, 여전히 속인의 방식대로 정(情)에 빠져 사람의 이치로 문제를 바라볼 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련 요소가 없다면 이렇게 해마다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투고에 참여하지 않은 수련생들에게는 각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수련생은 자신이 평범하게 수련해서 특별히 교류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수련을 잘하지 못해 쓸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사실 이는 모두 수련과 법회의 함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표현입니다.

수련에 대한 인식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표면적으로는 모두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으로 수련하는 모든 대법제자가 세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처음 수련에 들어선 이후부터 마지막 원만에 이르기까지는 사람에서 신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수련 과정입니다. 1년은 고사하고 매월, 매주 심지어 매일 매 순간 집착을 제거하고 심성을 제고하는 부분에서 돌파와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게다가 해마다 각기 다른 수련 단계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교류할 내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주로 여러분이 이 점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방면에 진정으로 마음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법회에 대한 인식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법회는 글짓기 대회가 아니며, 누가 글을 잘 쓰고 수련을 잘했는지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수련하는 모든 대법제자는 사람이 신이 되는 빛나는 정법수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법회는 일정 기간의 수련 체험과 깨달음을 글로 써내게 해 수련생들이 서로 끊임없이 같고 닮고 교류하며 공동 제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명혜망은 단지 비교적 대표적인 글을 선택해 여러분이 교류할 수 있도록 발표할 뿐이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좋지 않고 수련생이 수련을 못 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글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헛

수고를 했고 가까운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속인의 ‘참여에 의의를 둔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대법제자의 실질적이고 착실한 수련 과정의 진실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법회 기간에 투고한 많은 원고가 이후 1년 동안 계속 실리면서 더 많은 수련인이 그 속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수련생은 자신이 정말 글쓰기에 능숙하지 않다고 여겨 투고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는 수련 요소가 있으며, 투고에 참여하려는 자신의 마음이 확고한지, 두려워하는 정서와 사람의 관념에 직면해 돌파하려는지, 돌파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글을 쓸 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수련할 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토록 오랫동안 수련했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쓸 줄 모르면 말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수련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평소에 교류할 때는 아주 말을 잘하지만 투고하라고만 하면 겁을 먹는 수련생이 적지 않은데, 이 역시 인식상의 문제입니다.

둘째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회 투고는 확실히 수련생들 간에 전체 협력하며 공동 제고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전 법회 글 중에는 수련생이 구술하고 다른 수련생이 정리를 도와준 것이 적지 않으며, 수련생의 법회 원고 정리를 돕는 과정에서 수련이 제고된 체험을 글로 써서 교류한 수련생도 있습니다.

저희 법공부 팀은 이런 방식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명혜망 원고 모집 통지가 나온 후, 모두에게 2주간의 준비 시간을 주고 나서 법공부 팀에서 작은 법회를 엽니다. 모든 수련생이 자신의 수련 체험을 교류하고, 다른 수련생들도 해당 수련생이 교류한 내용과

엄숙하고 착실하게 수련하니 척추 옆 종양이 사라지다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8년 1월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으며 올해 73세입니다. 예전에 저는 뇌혈관 경화증을 앓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자주 졸렸으며 늘 잠만 자고 싶어 업무에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틀이 멀다고 병원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매번 머리, 척추 주위, 배에 침을 잔뜩 꽂았지만 완화되는 작용만 할 뿐 다음 날이면 또 침을 맞으러 가야 했습니다. 대법을 얻은 후 뇌혈관 경화증이 사라졌고, 몸이 가볍고 튼튼해졌으며, 기력이 충만해지고 허리가 꼳꼳해졌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제가 젊었을 때보다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4월 어느 날, 조카딸이 저에게 “큰아버지, 변하셨습니다. 등이 굽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큰 지장이 없고 생활과 업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기에 저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자 몸이 불편함을 느꼈고, 종아리가 부어오르며 변비가 생기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으며 배가 아팠습니다. 11월이 되자 배가 점점 더 아팠습니다. 12월에 이르러서는 뱃속에 주먹만 한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등 척추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뼈 위에 달걀만 한 종양이 자란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속인이라면 곧장 병원에 가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제자입니다!

게 많이 흘리시면 어떡해요. 사람 몸에 피가 얼마나 된다고요. 얼른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가보세요.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지 마시고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게는 사부님이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끝내 자녀들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고집했고 자녀들은 저를 현 병원으로 데려가 전신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병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제 신분증을 보고 제가 90세가 넘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여기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빨리 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시 병원에 가서 다시 전신 검사를 받고 MRI 검사까지 했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아마 모세혈관이 터진 것 같습니다. 괜찮으니 집에 돌아가세요”라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사부님이 계시는데 자녀들만 괜히 한바탕 고생하게 했습니다.

대법을 수련하면서 저는 건강해졌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전혀 폐를 끼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집 앞뒤 뜰에 심은 채소는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퇴직금이 남으면 자녀들이 돈이 부족할 때 제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섯 자녀 모두 파룬파와는 좋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미 92세가 됐지만 여전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프린터로 사람을 구하는 자료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법의 신기한 면이며 대법 사부님의 위대함입니다! 앞으로 길이 아무리 길고 멀더라도 저는 반드시 바르게 잘 걸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련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모든 수련생의 교류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고 전면적으로 변합니다. 글재주가 있는 수련생은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원고 정리를 완성할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한 수련생은 다른 수련생의 협조를 받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형식적으로는 팀의 모든 수련생이 투고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련생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수련 제고에 큰 축진이 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체 협력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바로 중국에서 글재주가 비교적 뛰어난 수련생들이 다른 수련생의 글을 최대한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혜망 문장 모음집인 ‘투고와 글쓰기에 관한 교류’ 등의 내용을 참고해 원작자 수련생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활용하며 원작자 수련생이 표현하려는 뜻을 명확히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문장이 매끄러우며 온갖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고 글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명혜망 수련생의 부담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회 투고 문제를 교류하는 것은 모든 수련생이 반드시 투고해야 한다거나 해마다 반드시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얻기 힘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 자신의 수련 과정에 대한 단계적인 인식과 결산 및 제고를 통해 수련생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교류하고 공동 제고할 기회를 하나 더 마련하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역시 개인이 현재 경지에서 깨달은 작은 인식일 뿐입니다. 명혜망 중국법회라는 이토록 성대한 일의 이면에는 분명 더 깊고 더 넓은 함의가 있을 것이며, 진심으로 참여해야만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수련인이 겪는 모든 고뇌는 고비를 넘는 것이고, 매번 발생하는 갈등은 모두 원만으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세 인들을 구하기 위해 행한 모든 선행에는 깊은 역사적 연원이 담겨 있으며,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구세력의 안배에 빠졌는지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모든 대법제자가 법 속에서 제고하는 것은 더욱이 대법이 우리를 무신론과 현대 관념에서 건져내어 서로 다른 층차의 새 우주 각자(覺者)로 단련해내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입니다.”

저는 이 단락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매번 법회에 참가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일심을 돌파하고 단순히 일만 하는 무감각함에서 자신을 일깨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일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법과 대조하며 진정으로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걷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에 이끌려 구세력의 안배에 빠진 것은 아닌지 법에 입각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수련의 더 깊은 함의를 깨닫게 됩니다.

수련은 본래 믿음이 먼저고 보는 것이 나중입니다. 수련 중에 마주치는 모든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균형을 잡을 수만 있다면 진심을 다해 해야 합니다. 정법수련의 길이 몹시 좁고도 몹시 어렵기에 우리가 사부님과 대법, 그리고 수련에 대해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을 품어야만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을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는 것이니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인쇄했으며 인쇄된 색상도 조금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이 젊은 수련생은 서둘러 프린터를 멈추고 잉크를 보충했습니다. 잉크를 다 넣은 뒤 다시 인쇄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잉크가 없을 때와 잉크를 보충한 뒤 인쇄된 중간 효과를 기다리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예상했던 색 빠짐이나 기포로 인한 공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련생도 모두 사부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한번은 제게 기술을 가르쳐준 수련생이 다시 왔습니다. 제가 여전히 인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인쇄 상태를 확인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잉크통을 살펴보더니 놀라며 “빨간색 잉크통에 어떻게 파란색 잉크를 넣으셨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인쇄된 자료의 색상을 확인했는데 조금도 뒤섞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어떤 색으로 나오든 인쇄된 것도 그대로 그 색이었습니다. 수련생은 애를 써서 빨간색 잉크통을 깨끗이 씻어낸 뒤 빨간색 잉크를 넣고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컬러 페이지를 인쇄해 보니 파란색 잉크를 넣었을 때 인쇄된 색상과 똑같았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은 정말 너무나 신기합니다!

3. ‘두렵지 않아요, 사부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병업 시련에서 벗어나다

저는 수련하기 전에 몸이 좋지 않아 늘 이런저런 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 수련에 들어선 뒤로는 어떤 병도 없어졌습니다.

한번은 갑자기 코피가 났는데 화장지 두 롤을 써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본 수련생이 “연세도 이렇게 많으신데 피를 이런

니다. 가끔 기계가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발정념을 하면 다시 잘 작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계가 정말 움직이지 않아 수련생이 도와서 수리하러 가져갔습니다. 수리기사는 “이 브랜드 기계는 4만 장 정도 인쇄하면 더는 안 되는데 이 기계는 벌써 10만 장이나 인쇄했네요. 이게 무슨 기계죠?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수련생은 업무상 인쇄량이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프린터를 수리해 가져온 뒤 소책자 다섯 권을 인쇄하자 밖으로 종이를 뱉어내기 시작했고 컴퓨터 화면에는 ‘용지를 넣어주십시오’라고 표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계가 더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계를 향해 “너는 아직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으니 잘해야 해. 힘내서 일하자!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함께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자. 사부님, 기계를 도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사부님 감사합니다! 기계도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계가 저절로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10만 4천 장을 인쇄했고 매일 소책자 열 권씩 인쇄하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이 계속 인쇄할 수 있습니다.

4) 잉크를 잘못 넣은 뒤 나타난 신기한 현상

프린터에 잉크를 넣는 문제를 수련생은 제게 수없이 당부했습니다. “잘 살펴야 해요. 잉크가 떨어져서도 안 되고 잘못된 잉크를 넣어서도 안 돼요.”

어느 날 저를 가르쳐준 젊은 수련생이 제가 정상적으로 인쇄할 수 있는지 보러 우리집에 왔습니다. 프린터는 한창 인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인쇄된 글씨를 확인했는데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는 또 잉크통을 살펴보니 “잉크통 하나가 완전히 비었는데 이러면 공기가 들어간 것 아닌가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

현대 관념을 타파하며 얻은 약간의 깨달음

글/ 청년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청년 대법제자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현대 관념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큼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이 산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시구처럼,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현대 관념인지 모릅니다. 아래에 제가 현대 관념을 수련해 없애면서 얻은 약간의 깨달음을 적어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1. 놀러 다니는 데 집착하는 현대 관념 타파

요즘 인터넷,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놀러 나가는 유행이 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문제가 없는 듯합니다. ‘계수나무꽃을 사서 술과 함께 배에 싣고 싶지만, 결국 소년 시절의 유람과는 같지 않구나’라는 시구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련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안일과 향락을 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수련인이 추구하는 것이 안일과 향락입니까? 산수를 유람하며 즐기는 것입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제 포레들은 휴일만 되면 각종 유원지의 풍경 사진을 올렸고, 이것은 제 집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휴일에 실컷 놀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 같았고, 이런 생각이 이미 잘못됐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는 부모님(수련생)께 놀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휴일 시간을 아껴 기술을 배워 장래에 전문성을 갖춰야지, 놀러 다니는 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

유를 들었을 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은 확실히 제게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성적일 때는 노는 것보다 배우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대체 무엇이 저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이토록 노는 데 집착하게 만들었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정념을 할 때 저는 저를 집착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때 문득 휴일이면 반드시 놀러 나가야 한다는 관념이 바로 현대 관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현대 관념에 통제됐기에 이성을 잃은 듯 그렇게 집착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제거하고 나니 저는 순식간에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 나쁜 말을 두려워하는 관념 타파

현대 관념은 결국 핵심이 단 하나인데 바로 사(私)를 위하는 것입니다. 사를 위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기 싫은 말이나 나쁜 말은 듣고 싶지 않고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관념도 파생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줄곧 비판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한창 신나 있을 때 또 아버지의 비판을 받아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본래는 기분이 아주 좋았는데 순식간에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잘못했을 때 받는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제가 교만해질까 봐 일부러 하신 듣기 거북한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제게 그런 말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중국식 억압형 교육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언급하는 비판도 이런 부류입니다.)

켜보는 가운데 저는 키보드에서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봤는데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수련생이 “누른 게 다 틀렸는데 어떻게 컴퓨터가 켜진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동수님이 가고 나니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누르면서 사부님께 컴퓨터를 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켜졌어요”라고 했습니다.

2) 모두 사부님께서 해주시는 것

그날 수련생이 무척 애를 써가며 하나하나 손수 가르쳐줘서 제가 겨우 인쇄하는 법을 배우자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돌아왔는데 마침 제가 인쇄하고 있었고 인쇄된 결과물도 아주 좋았습니다. 수련생은 컴퓨터에서 제가 인쇄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다가 설정 화면에는 ‘홀수 페이지만’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인쇄돼 나오는 것은 짝수 페이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련생은 저를 한번 보고 짝수 페이지를 인쇄하고 있는 프린터를 한번 보더니 다시 컴퓨터 화면에 ‘홀수 페이지만’으로 설정된 것을 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내용을 모두 인쇄하고 나자 수련생이 “인쇄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련생에게 직접 조작해 보여줬습니다. 저는 인쇄 부수만 선택한 다음 ‘인쇄’를 눌렀고 다음 면을 인쇄할 때는 한쪽 면이 인쇄된 종이를 뒤집어 다시 인쇄 부수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됐습니다. 저는 줄곧 이렇게 설정해 인쇄했으며 인쇄된 것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수련생은 놀라며 “정말 사부님께서 해주시는 거네요!”라고 했습니다.

3) 과부하로 작동한 프린터

제 프린터는 매주 진상자료를 200~300부씩 인쇄해야 했고 하루에 6시간 넘게 작동했습니다. 사람은 쉬어도 기계는 쉬지 않았습

했습니다. 그런데 솜신발을 보니 정말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료점은 비바람을 겪으면서도 줄곧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제 92세가 됐고 삼륜 자전거도 두 대나 탔습니다.

2. 모두 사부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니 저는 마음만 쓰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학교를 몇 년 다니지 못했고 조금 알던 글자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고 자료를 인쇄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법은 여러 차례 기적을 보여줬고 저는 이를 통해 깊이 체득했습니다. ‘모두 사부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니 나는 마음만 쓰면 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신기한 컴퓨터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잊어버렸습니다. 수련생은 농담으로 “자꾸 잊어버리시니 아예 ‘늘 깜빡’이라고 이름을 붙여드려야겠네요”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이 저를 가르치는 것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는 병음도 몰랐고 대소문자는 더욱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무작정 외워 비밀번호를 기억해 컴퓨터를 켤 수 있게 되자 수련생은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수련생이 돌아와 제가 컴퓨터를 얼마나 배웠는지 보며 “컴퓨터를 한번 쳐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수님을 보니 또 잊어버렸네요”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혼자 집에 계실 때 어떻게 쳐셨는지 그대로 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이 옆에서 지

다. 타당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에게 바르지 않은 상태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부에서 저를 그다지 인정해 주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나 나쁜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순식간에 일종의 슬픈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두 겹고 무거운 물질이었는데, 사람이 그것에 휩싸이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질고 소극적이며 우울한 감정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말할 때도 기운이 없어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몹시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런 상태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본래 아주 명랑하고 밝은 사람이기에 이렇게 나약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석가모니불과 예수님께서 사람을 제도하실 때 어떤 사람이든 마주칠 수 있었고 어떤 나쁜 말이든 다 들으셨을 텐데, 설마 그분들이 나쁜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람을 제도하는 일을 포기하셨겠는가?’ 사실 그런 말은 진정한 각자(覺者)를 전혀 흔들지 못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자신의 목적이 있어 그런 중요하지 않은 냉소적인 말에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저는 절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존재가 아니며, 이것은 진정한 저를 덮고 있는 후천적인 관념이자 좋지 않은 물질이었습니다. 저는 곧 발정념을 해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했고, 다시 낙관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적극적으로 향상하는 본래의 저로 돌아왔습니다.

사존께서는 ‘홍음6’에서 여러 차례 현대 관념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대법제자로서, 특히 현대 관념에 가장 쉽게 통제

되면서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청년 수련생들은 반드시 자신의 일사일념을 중시해 이런 변이된 물질을 수련해 없애야 합니다. 이것은 뻗속 깊이 새겨질 수련의 여정이겠지만, 법에 대조하고 정념으로 사고하기만 한다면 집착을 수련해 없앤 후의 현묘함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층차에서 깨달은 약간의 체득이니 부족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허스(舍十)

92세 할머니와 프린터 이야기

글/ 중국 대법제자(본인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저는 1996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입니다. 30년의 수련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저는 늘 사부님과 법을 믿었습니다.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존의 자비로운 보살핌과 수련생들의 묵묵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자료를 전하고 만들고 배포하다

중국공산당(중공) 박해가 막 시작됐을 때 현지에는 경문도 없었고 진상자료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내에 아는 수련생이 있었기에 걸어서 4리를 가 현에 도착한 뒤 다시 차를 타고 5~6리를 가 시내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집 형편은 비교적 어려워 집 앞뒤 뜰에 채소를 조금 심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때때로 자녀들이 돈을 조금 주어도 저는 아까워서 조금도 쓰지 못하고 모두 남겨뒀다가 자료를 가지러 가는 교통비로 썼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다녀와야 했으며 자료를 가져온 뒤에는 다시 걸어서 현과 주변 몇 리, 어떤 곳은 십여 리 떨어진 시골의 수련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너무 힘들게 다니는 것을 보고 삼륜 자전거 한대를 사줬습니다. 수련생이 어느 날 진상자료가 필요하다고 정해놓으면 날씨가 어떻든 저는 비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자료를 가져다줬습니다. 이렇게 2년을 견지한 뒤 시내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돈도 없으신데 이렇게 오가며 자료를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당신이 사는 현(縣)에도 자료를 만드는 곳이 있으니 돌아가서 그곳에서 가져가세요.” 저는 자료를 가져오고 배달하는 일을 또 7년 동안 했으며 삼륜 자전거마저 낡아서 더는 탈 수 없게 됐습니다.

2008년 수련생이 비용을 내 기계와 설비를 사줬고 우리집에 자료점을 세워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웠습니다. 진상자료를 다 만든 뒤에는 제가 다시 수련생들 집까지 가져다줬으며 저 자신도 밖에 나가 진상자료를 배포하며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배달할 때면 정말 기운이 나고 힘이 솟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운 줄 몰랐고 겨울에는 추운 줄 몰랐으며 비가 오는 날에도 비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0여 도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날씨에는 솜신발이 충분히 두껍지 않으면 발이 얼 정도였습니다. 한 수련생이 보니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은 밑창이 떨어지려 했고 발가락까지 드러나 있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삼륜 자전거를 밟으며 밖으로 자료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뒤 수련생이 발이 시리지 않느냐고 묻자 저는 “전혀 차갑지 않았어요. 제 발은 따뜻하기만 했어요”라고